

조선 사람들이 그려낸 세계

노 혜 정

(수도여자고등학교)

1. 지도 읽기: 지도에 대한 오해와 이해

기원전 6세기 경 바빌로니아 인들이 점토판에 그린 지도는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로 알려져 있다. 이 지도에는 두 개의 큰 원이 그려져 있는데, 안쪽에는 육지가, 바깥쪽에는 바다가 그려져 있으며, 세계의 중심에 신바빌로니아 제국과 수도인 바빌론이 위치해 있다. 12세기~14세기 중세 유럽인들이 그린 T-O지도는 십자가 T를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나누어져 있고, 북쪽에 아시아가,¹⁾ 세계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그려져 있는데, 세계의 중심에 중국이 가장 크게 그려져 있고, 조선이 유럽이나 아프리카보다 크게 그려져 있다. 메르카토르도법의 세계지도에서는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면적이 확대되어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실제보다 커 보

1) 동쪽의 해가 뜨는 아시아 너머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여 지도의 윗면에 오도록 하였다.

인다. 유럽과 아메리카에서는 대서양 중심의, 동아시아에서는 태평양 중심의,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남쪽이 지도의 상단에 오는 세계지도를 그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도가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는 오해를 한다. 그러나 과학적 방식으로 제작된 현대 지도에서조차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의 평면에 표현하는 데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지도제작자는 무엇을 그릴 것인지, 또는 그리지 말아야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그릴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고지도이든 현대지도든 지도 속에는 제작자의 세계관과 의도가 담겨질 수밖에 없다. 지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해’의 관점에 선다면 우리는 지도를 통해 물리적 세계를 파악할 뿐 아니라 지도를 만든 사람들의 정신적 세계에까지 다가갈 수 있다.

오상학 교수의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인식』은 이러한 여정을 제시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20년 넘게 고지도에 천착해온 저자의 박사 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책이라 고지도 전공자가 아닌 이들이 읽기에는 다소 어려운 책이다. 고지도 중에서도 현존하는 조선의 세계지도들에 관해 학술적으로 분석한 책으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수박겉핥기 식으로 배웠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나 『천하도』 등의 세계지도에 대한 지적 관심을 충족시켜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많은 정보를 지도를 통해 얻다보니 현대 지도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주로 정확함이다. 그러나 지도를 읽는 관점은 더 다양할 수 있다. 지도를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본다면 정확성을 요구할 것이다. 어떤 이는 지도를 지도제작자의 지식이나 사상의 반영물로, 어떤 이는 예술 작품으로 읽는다. 이 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도를 읽는 관점과는 다른 관점-사상적 반영으로서의 지도-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지도 읽기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 준다.

2. 조선시대 세계지도에 대한 지적 여정

이 책은 현존하는 조선시대 세계지도를 통해 조선시대 사람들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의 관점은 미지의 세계까지 포함하는 넓은 영역의 세계지도에 역사적으로 축적되고 사회적으로 공유된 고도의 추상적 도상이 표현되기 때문에 한 장의 세계지도를 통해서도 당시 사회의 세계인식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지도가 제작되는 사회적 과정에 주목하여 세계지도를 시계열적인 변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변화의 중요한 계기를 ‘17세기 서구식 세계지도의 유입’으로 보았으며, 전통적인 천원지방(天圓地方)²⁾관, 중국을 중심에 두고 세계를 인식하는 중화적 세계관에서 지구설(地球說)과 5대양 6대주의 세계지리 이해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책은 시기별로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15, 16세기에 제작된 세계지도를, 2부에서는 중국에서 전래된 서구식 세계지도의 영향을 받은 17, 18세기 세계지도를, 3부에서는 17, 18세기에 제작되었던 원형 천하도를, 4부에서는 19세기의 세계지도를 분석하였다.

저자는 지도제작의 기술이나 정확성 등과 같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지도를 바라보는 것에서 탈피하여 지도가 제작되는 사회적 과정과 지도 속에 담겨있는 의미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세계인식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조선시대 세계지도의 분석을 통해 세계인식의 변화가 진화론에 입각하여 단선적인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여건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서구식 세계지도가 유입되면서 조선 전기의 단층적 세계인식이 조선 후기에는 전통적 세계인식,

2) 동양의 전통적인 우주관(또는 천지관)으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고 평평하다’고 인식하였다.

서구식 세계인식, 변용된 세계인식 등 여러 세계인식이 복합적이면서 중층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2.1. 조선 전기의 단층적 세계인식

17세기 이전 조선 전기에 제작되어 현존하는 세계지도는 15세기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16세기의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이다. 이 세계지도들은 동양의 전통적인 천지관인 천원지방과 중화적 세계인식에 기초해 있으며, 국가적 사업으로 제작되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동아시아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1402년, 이하 ‘강리도’)는 원도가 현존하지 않으며, 4종의 필사본이 일본에 소장되어 있다. 이 지도는 조선전도와 일본지도, 현존하지 않는 중국의 『성교광피도』, 『혼일강리도』를 합쳐 편집 제작한 것이다. ‘강리도’는 지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조선, 일본, 유구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를 비롯하여 인도, 아라비아, 100여 개의 지명이 표기된 유럽과 35개의 지명이 표기된 아프리카까지 구대륙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강리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동서양의 문화교류 측면에서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에 관한 내용이 많다. 저자는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을 인정하지만 그 차이점에 더욱 주목하였다. 저자에 의하면, 이슬람 지도학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지도학을 계승한 지구설을 바탕으로 하지만 ‘강리도’는 전통적인 천원지방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남쪽을 지도의 상단에 놓는 이슬람 세계지도와는 달리 북쪽이 상단으로 배치되었으며, 아프리카나 유라시아 대륙의 윤곽 등도 이슬람 세계지도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저본이 되었던 『성교광피도』 등이 이슬람 지도를 수정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던 유럽, 아프리카까지 더 넓은 세계를 그린 ‘강리도’는 직방세계 중심으로 그려지는 중국의 전통적인 화이도와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기본적으로 중화사상을 담고 있다. 저자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표현과 관련하여 이 지도에 그려졌다고 해서 조선인들이 이 지역의 객관적 실재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지도라는 것이 보다 넓은 의미에서 현실의 세계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의 세계까지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한편으로 저자는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세계만을 세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도 존재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 조선인들의 개방적인 태도로 해석하였다.

16세기에 등장한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는 중국에서 입수한 양자기(楊子器, 1458~1513)의 지도를 저본으로 삼아 조선 부분을 추가하여 편집하여 제작한 것이다. 이전의 ‘강리도’와 달리 지역적 범위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일대로 세계가 크게 축소되어 중국 전통의 직방세계로 회귀하였고, 일본과 유구도 조선에 비해 아주 작게 그려져 있다. 그러나 지도에 수록된 내용이 이전 시기의 지도보다 최신의 정보로 더욱 정교하게 된 점이 특징이다. 저자는 이를 중화=명, 소중화=조선으로 파악하는 16세기 주자성리학의 체계적인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유교적 기준에 입각하여 의미 있는 지역을 선택적으로 그려내었으며, 특히 중국과 조선을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시켜 그렸다. 그리하여 15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동안 세계가 축소되어 교류가 거의 없었던 유럽, 아프리카, 아라비아가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중국 전통의 직방세계로 회귀하였다.

2.2. 조선후기의 중층적 세계 인식

저자는 중국을 통한 서구식 세계 지도의 전래를 조선에서 세계 인식의 전환점으로 보았다. 17세기 중국에서 활동했던 예수회 신부들이 제작한 세계지리서와 서구식 세계지도는 대항해 시대 이후 축적된 서양의 지리 지식과 르네상스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지도학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었다. 서구식 세계지도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지녔던 중화적 세계인식에 충격과 영향을 주었으며, 조선에도 전래되어 지식인들의 시야를 새롭게 넓혀주었다. 그 결과 주류의 전통적인 세계인식 위에 서양의 세계인식이 중층적으로 존재했음을 저자는 강조한다. 제작된 세계지도의 유형도 더 다양해졌다. 서구식 세계지도 뿐 아니라 변형된 세계지도, 전통적인 세계지도 등이 제작되었다. 또한 15, 16세기의 세계지도는 주로 국가적 사업에 의한 것이었지만 17세기 이후에는 민간에서도 제작되었다.

2.2.1. 서구식 세계지도

1603년 조선에 최초로 서양선교사가 제작한 서구식 세계지도가 중국으로부터 도입되었다. 이 지도는 마테오 리치의 1602년판 『곤여만국전도』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알레니가 저술한 세계지리서인 『직방외기』에 실린 「만국전도」(1623년), 페르비스트의 『곤여전도』(1674년)³⁾ 등이 조선 지식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지도들은 17,18세기에 조선에서 다시 모사되거나 복간되었다. 저자에 의하면 조선에서 서구식 세계지도를 제작할 때 단순히 그대로 모사한 것만은 아니다. 알레니의 「만국전도」를 모사한 것으로 보이는 규장각 소장 「천하도지도」에서 조선 부분에 「만국전도」에는 없는 백두산과 울릉도의 모습이 보이고, 동해와

3) 『곤여만국전도』와 「만국전도」는 타원형, 『곤여전도』는 동서 양반구가 분리된 양반구도이다.

서해 등이 표기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곤여도』에 수록된 세계지도는 『곤여전도』와 같은 양반구도 형식의 서구형 세계지도의 동반구와 서반구를 하나의 원에 통합하여 그렸다. 이러한 지구설의 수용은 대체로 서양문명이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중국원류설’에 바탕하여 유교 문화의 입장에서 서양 과학기술 문명을 수용한 것이었다.

17, 18세기 서구식 세계지도의 수용을 통해 인식을 변화시켰던 흐름이 최한기의 『지구전후도』와 『지구전요』의 세계지도로 이어졌다. 현존하는 19세기의 단독 세계지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구전후도』(1834년)는 김정호의 도움을 받아 최한기가 제작하였다. 이 지도는 중국 장정부의 지구도⁴⁾를 그대로 판각한 양반구⁵⁾의 서구식 세계지도이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지구전후도』가 『황도남북항성도』라는 천문도와 함께 수록되어 쌍을 이루며, 지도에 계절의 변화와 일출입 시각 등 역법과 관련된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의 가장 큰 의미는 휴대와 열람에 편리한 소규모 첩의 형식으로 목판인쇄됨으로써 이전의 어떤 세계지도보다 대중적 영향력이 컸으리라는 것이다. 최한기의 철학적 체계 하에 편집된 가장 방대한 세계지리지인 『지구전요』(1857년, 13권 7책)에 부도형식의 지도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도책은 중국 서계여(1795~1873)가 저술한 『영환지략』의 지도들을 저본으로 하였는데, 조선에서 세계지도첩의 효시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2.2. 변형된 세계지도

조선이 중국을 통하여 서양의 지리 지식을 접한 이후 새롭게 등장한 종류의 세계지도는 원형의 『천하도』로, 17세기부터 19세기말까지 민간

4)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대청통속직공만국경위지구식’이란 명칭으로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5) 동반구는 ‘지구전도’, 서반구는 ‘지구후도’로 제작되어 있다.

에서 제작되어 가장 대중적으로 보급되었다. 다른 지도와 함께 첩 또는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여 목판본과 필사본까지 합치면 현존하는 단일지도로는 그 종수가 가장 많으나 조선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구조의 세계지도여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더불어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천원지방의 세계관이 지배적이었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원형의 세계지도보다 사각형의 땅을 그린 세계지도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원 속에 세계를 그린 원형의 『천하도』는 중앙에 내대륙이 있고, 그 주변을 내해가 둘러싸고, 내해의 바깥에 고리모양의 외대륙이 있고 외대륙의 외부에 외해가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대륙에는 중국, 조선 등 당시 실재하던 나라의 지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내해에는 일본, 유구 등의 실재 나라 명칭도 보이나 외대륙과 더불어 대부분은 가상의 지명들이다. 가상의 지명들은 대부분 중국의 가장 오래된 지리서인 『산해경』에 있는 것들이나 도교 관련 서적에서 보이는 것들이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천하도』의 원형이 서구식 세계지도 가운데 단원형 세계지도에서 기원했다고 본다. 그러나 저자는 원형 천하도의 원형이 땅, 즉 둥근 지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까지를 표현한 것으로 전통적인 천원지방의 천지관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특히 이 지도에 기재된 주기를 통해 우주지적 특성으로서 삼재사상, 즉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세계를 표현하는 천지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천하도가 직방세계보다 넓은 세계를 표현하고 있고, 지명이나 그림 등을 통해 도교적인 신선사상도 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계의 중심은 여전히 중국으로 중화적 세계인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중국은 중앙에 원으로 크게 강조했으며 조선은 아무런 표시 없이 글자로, 나머지 주변 나라들은 직사각형 안에 표기한 방식(원, 무도형, 직사각형 표

현)은 국가의 위계를 보여주며 중국은 중화(中華), 조선은 소중화(小中華), 기타 나라는 이국(夷國)이라는 전형적인 화이관(華夷觀)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기존의 연구는 서구식 세계지도에 대항하여 만든 도교적 세계지도 또는 서구식 세계지도에 대한 조선적 해석의 세계지도라는 입장이 지배적인데, 저자는 표현방식과 내용은 전통적인 천원지방과 중화적 세계인식에 의존하면서 보다 넓어진 세계인식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조선의 독특한 지도로 보았다. 이후 서구식 세계지도의 영향으로 경위선망이 그려진 『천하도』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19세기에 목판본으로 제작된 『여지전도』는 서양의 지리지식이 조선사회에서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지도라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지도이다. 이 지도는 양반구도로 제작된 서구식 세계지도를 조선에서 변용해 제작한 대표적인 세계지도인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대륙이 그려져 있으나 아메리카 대륙은 빠져있다. 지도의 내용과 전체적인 윤곽은 최한기의 『지구전후도』의 ‘지구전도’와 유사하며, 지도 여백에 지지적인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김정호의 『대동지지』⁶⁾에 수록된 것과 일치한다. 그리하여 저자는 『여지전도』가 19세기 중반 김정호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서구식 세계지도인 『지구전후도』와 비교하면 『여지전도』는 원형이 아닌 사각형에 세계를 그렸고, 중국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으며,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은 축소된 반면 조선, 일본, 유구, 동남아시아 등은 확대되어 표현되었다. 중국과 서역, 조선, 일본 등이 상세하게 표현되고 조선의 전통적인 산줄기 중심의 산지가 그려져 있는 것이 아주 흥미롭다.⁷⁾

그리하여 저자에 의하면 『여지전도』는 지구설에 바탕하여 직방세계를 확대하여 세계를 그렸으나 기본적으로 중화적 세계인식에 기초한 세계

6) 30권 15책의 한국지리서.

7) ‘강리도’의 조선 부분에서도 풍수지리의 영향으로 백두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를 실선으로 표현한 연맥식(連脈式)으로 산지를 표현했다.

지도이다. 즉 서양의 지리 지식을 전통적인 세계인식의 틀로 변용시킨 지도로, 서양의 지리 지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인식틀로 재해석하고 새롭게 표현해내었으나 전통의 중화적 세계인식이 여전히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2.2.3. 전통적인 세계지도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두고서 논하지 않는다’는 존이불론적인 태도에 입각하여 서구식 세계지도가 보여주는 세계에 대해 반대와 비판을 하면서 전통적인 지리적 세계관을 고수한 직방세계 중심의 세계지도도 제작되었다.

목판본으로 제작된 김수홍의 『천하고금대총편람도』(1666년)는 전통적인 직방세계를 그린 가장 대표적인 세계지도이다. 특징으로 지도와 지리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진 전통적인 양식, 기존의 직방세계 외에 『산해경』에 나오는 가상의 나라들, 하늘의 별자리를 땅에 배치하는 분야설⁸⁾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직방세계를 그린 세계지도는 19세기까지 조선 시대 세계지도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3. 지도란 무엇인가

저자의 세계지도에 대한 긴 지적 여정은 조선의 개항에서 끝난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들었던 잡념을 풀면서 글을 끝맺고자 한다. 이 책의 초점은 세계지도에 담겨있는 세계인식을 읽어내는 것이다. 세계가 미지의 것으로 흘러 넘쳤던 시대에는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물음보다는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세계관 또는 세계인식)라는 물음

8) 천지상관적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하늘과 땅을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이다.

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⁹⁾ 그리하여 전통시대 세계지도 연구에서 세계인식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특정한 시기에 역사적, 사회적으로 형성된 특정한 세계관을 가진 지도 제작자가 세계지도를 만든다. 그리고 그 지도는 다시 사람들의 세계인식을 만든다. 그 과정에 담겨있는 많은 내용들이 궁금해진다. 현존하는 동아시아 최고(最古)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담겨진 세계인식과 고려시대와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도 궁금해진다.

한편 저자도 책의 첫머리에서 언급했듯이 세계지도는 문화교류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세계지도에는 문화교류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 서양 지리지식의 유입으로 전통적 세계지도, 서구식 세계지도, 변용된 세계지도 등의 다양한 지도가 나타난 것도 흥미롭지만, 서구식 세계지도를 조선식으로 그린 『여지전도』와 같이 변용된 세계지도 속에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의미 있는 많은 문화교류의 내용이 담겨있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지도를 지표면의 현상을 줄여서 기호로 2차원의 평면에 표현한 것이라는 좁은 의미에 한정짓다보니 고지도 또한 역사 해석의 보조 수단으로만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저자 또한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지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던진다. 최근에는 지도의 개념이 지리적 실체를 넘어 한 사회의 사고방식, 관념, 역사적 사건, 신념과 믿음, 심미적 요소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그리하여 지도를 인간 내부의 정신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인간정신의 보편성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본다(48-49쪽). 이렇게 확장된 지도의 개념은 지도를 읽는 다양한 관점을 열어 주고, 지도 연구의 지평을 넓혀 준다는 점에서 이 책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지도연구자들의 더 다양한 해석이 기대 된다.

9) 오지 도시아키 지음(2009), 송태욱 옮김, 『세계지도의 탄생』, 알마.